



대한 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 소식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발행인 : 임정기/편집인 : 김동규/서울시 용산구 이촌 1동 302-75/전화 02)798-3807/전송 02)794-3148 | www.kamje.or.kr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우리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0년 10월 현재 190종 학술지 (의학 학술지 154, 의과대학 학술지 11, 의학 외 분야 학술지 25)이며, 개인회원이 38명이다.

또한, 특별회원은 지난 7월 신규로 가입한 서형디자인과 (주)신원데이터넷을 포함하여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진기획, 최신의학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XMLink Co., Ltd.,

InfoLumi, Google Inc., NHN(주),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ARCHIVE 총 17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798-3807 (내선 108), Fax: 794-314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Digital Object Identifier는 선택인가 필수인가?

허선 (정보관리위원장)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모든 간행물을 통틀어 Digital Object Identifier(DOI)를 최초로 부여한 것은 2007년 8월호 '대한과학회지'이다. 우리나라 의학학술지가 국제 정보에 이렇게 대응한 것은 출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DOI를 통하여 한번의 클릭으로 해당 논문의 원문 정보로 갈 수 있어 학술지 네트워크 시장에서 학술 논문을 쉽게 유통시킬 수 있다^[1].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를 구성하여 편집인이 같이 공부하여 학술지를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문헌정보 전문가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높이 평가하여 도움을 청하였기 때문이다. 2010년도 9월 초 현재, 이미 80여종의 의학학술지가 DOI를 논문마다 세기고 있다. 3년만에 이렇게 많은 학술지가 참여하였다는 것은 또한 놀랄만한 일이다. 우리가 DOI를 세기면서 다른 과학 분야 학술지도 정부 산하 기관의 도움으로 DOI를 논문마다 부여하기 시작하여 우리가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OI는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를 다룰 수 있어야 하고, landing page를 온라인에서 구축할 수 있어야 제대로 구현 가능한 것이므로 이미 DOI를 다룬다는 것은 국제적인 산업출판사와 겨루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는 뜻이다. 아직도 수많은 전 세계 학회 발행 학술지 중 상당수는 DOI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이런 정보 분야 역량이 국제적으로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996년부터 15년간 정보관리위

원회에서 일하면서 마지막으로 작업한 것이 DOI 및 PubMed Central (PMC)이다. PMC는 영문이어야 가능하므로 모든 학술지가 시도하기는 어렵고 약 100종 정도 가능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DOI는 영문 초록과 영문 참고문헌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모든 학술지가 참여 가능하다. 현재 많은 학술지가 DOI에 참여한 것만도 꿈같은 일이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국내 의학 학술지는 모두 다 DOI를 논문마다 세겨야 할 때이다. 앞으로 정부에서 학술지 지원 정책을 펼 때, DOI를 과학 학술지의 기본 요건으로 삼아 차별대우할 가능성성이 매우 높다. 즉 과거에 ISSN 없이도 학술지를 발행하였지만, 최근에는 ISSN은 학술지의 기본이 되었듯이 이제 과학 학술지에는 DOI가 기본 조건이 되었다. 우리나라 정부나 국민은 국제 표준이라면 매우 빠르게 받아들여 확산시키는 에너지가 있다. 그렇다면 DOI는 선택일지 필수일지 편집인과 발행인은 모두 진지하게 생각할 때이다. 아직 DOI를 붙이지 못한 의학 학술지는 2011년부터는 논문마다 DOI를 붙이고, 이 작업을 위해 경제적 부담이 있기는 하나 DOI를 붙임으로 인해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저자들이 경비를 부담하는 쪽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REFERENCE

1. The DOI System [Internet]. Oxford: International DOI Foundation; 2010 [cited 2010 Sep 6]. Available from: <http://doi.org/>.



출판윤리위 「의학논문의 중복출판 분석 사례집」 발간 예정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모한 2010년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자유주제)에 채택되어, '의학논문의 중복출판 분석 사례집 발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 제목 : 의학논문의 중복출판 분석 사례집 발간 사업
- 책임연구자 : 함창곡 출판윤리위원장
- 연구비 : 980만원
- 연구기간 : 2010년 6월부터 1년

2009년 발행 지연 학술지 KoreaMed, KoMCI 등재 리스트에서 삭제

학술지의 정시 발간은 학술지를 정의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의편협에서는 학술지 발행의 정기성이 국내외 학술정보 색인기관의 등재와 학술지의 기본 성격을 규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고, 발행 간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KoreaMed 학술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리

지침을 정한 바 있다.

의편협 임원회의에서는 '발행지연 KoreaMed 학술지 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2009년 발행 지연 학술지를 KoreaMed와 KoMCI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 발행 지연 KoreaMed 학술지 처리 지침

대상 : 발행일을 3개월 이상 초과하여 발행 일자를 지키지 못하는 학술지

- 1차 조치 : 발행일을 3개월 이상 경과한 학술지에 대해서 경고
- 2차 조치 : 경고를 받은 학술지의 간기가 다시 3개월 이상 지연되는 학술지는 KoreaMed, KoMCI 등재 목록에서 삭제
- 삭제 후 조치 : DB에서 탈락된 학술지가 2년간 간기를 잘 지켜서 발행하면 기획평가위원회에서 별도 검토 후에 재등재 여부를 검토

제 25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신규평가회 개최

회원학술지 중 지난 평가에서 평점 2.5 미만의 점수를 받은 학술지와 아직 한 차례도 평가받지 않은 학술지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2일 오후 4시 서울의대 본관 교수회의실에서 제 25차 의학학술지 신규 평가회를 개최하였다. 대상 학술지 중 평가를 신청한 학술지 10종의 학술지가 평가를 받았고 이 중 7종의 학술지가 2.5점 이상을 받아 KoreaMed 등재되었다. 각 학술지별 평점은 아래와 같다.

평가 결과 : 간호행정학회지(3.00), 대한글관질종양학회지(2.70), 대한기관식도과학회지(2.46), 대한폐경학회지(3.89), 순천향의과학(2.48), 임상당뇨병(2.46), Allergy, Asthma & Immunology Research(4.46), Asian Spine Journal(4.08), Laboratory Animal Research(3.64), The Journal of Advanced Prosthodontics(3.73)

KoMCI 2009 발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의학학술지 평가를 통해 KoreaMed에 등재된 156종 (2009년 기준)의 국내 의학학술지 상호간의 인용 형태를 분석한 [KoMCI(Korean Medical Citation Index) 2009]가 발간되었다.

이를 통해 2009년도 KoreaMed 등재 학술지의 게재논문 수, 한국문헌 인용 비율, 자체학술지 인용 비율, Impact Factor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KoMCI 2000에서부터 열번째로 발간된 이 보고서에 많은 관심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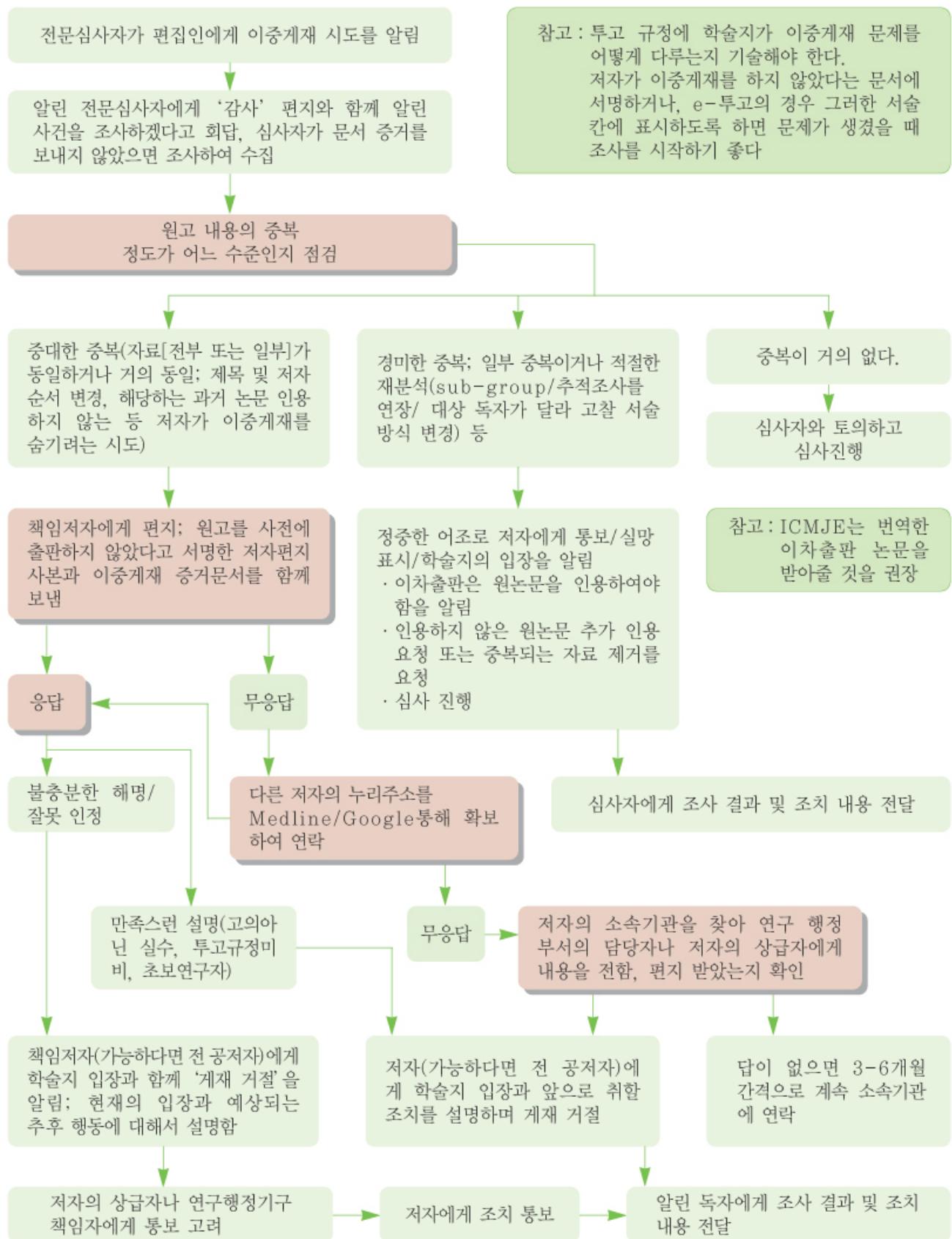
KoMCI 2009에 수록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komci.org>)에서도 볼 수 있다.

영국출판윤리위원회(Cooperativ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Flowchart 한글 번역본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Flowchart를 허선 정보관리위원장이 한글로 번역한 내용을 시리즈로 소식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 소식지에는 이중게재 부분을 수록한다.

이중게재 투고 상태에서 이중게재 시도를 의심하는 경우



이중게재 의심 이미 출판한 논문의 이중게재 의심

